

다른 불 (레위기 10:1-7)

제목은 다른 불인데, 다른 그리스도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원리적으로 따지면 다른 그리스도는 없다. 사실은 다른 불도 없다.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불이어야 한다. 우리가 지난 주에는 요한복음 18장에서 '내가 그니라'라고 하였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여야하지 다른 사람이면 안된다. 똑같은 이야기이다. 하나님이 지명하신 불이 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다. 내가 그니라라는 말씀은 '내가 너의 저주를 해결한 그 그리스도야'라는 말이다. '내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바로 그야'라는 뜻이다. 우리를 지옥의 저주에서 건지신 바로 그분이라는 말이다. 우리가 항상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이것이 언약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 언약으로 우리가 반석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 참 놀라운 일이다. 그리고 오직 그 언약 이유 하나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평생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음부의 권세는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언약하여 넘어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음부의 권세는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에게 천국 열쇠도 주셨다. 눈에 안 보이는 열쇠이다. 그리스도가 이 천국 열쇠이다. 하늘 문을 여는 것이다. 그것이 예배이고 기도이고 언약 잡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예배는 시공간을 초월한다. 하나님의 약속이 처음부터 그랬다. 그리스도를 보내어 뱀의 머리를 깨 것이라고 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언약이 아니면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것이다. 감사한 일이다.

지금은 우리가 비대면 시대라고 공공연히 이야기 한다. 코로나 이전에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면 어색하고, 예배를 드려도 드린 것 같지 않고 그랬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든지 이해하고 다 예배 한다. 그 전에는 이것을 하는 것이 힘들었다. 그리고 동시 다발적으로 많은 나라에 연결도 된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이 훈련에 들어올수가 있다. 하나님이 시대를 이끌어 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과이다. 우리는 당연히 따라가야 하고 오히려 이 부분을 더 활용하고 그래야 한다. 세상에는 우연이 없다. 그렇다면 코로나에도 계획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 예배를 등한시 하게 될수도 있다. 이런 것을 조심해야 한다. 신자는 예배에 성공하지 않고는 인생에 성공할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인정한다. 그리고 예배를 언약 잡고 올바르게 드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과 목표, 전도도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것이다. 문을 여시니까. 그래서 집에서 예배 드리거나 하는 분들, 타지역도 마찬가지이고 언약을 더 딱 잡아야 한다. 사람말 절대 듣지 말고 사단의 소리도 절대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문제도 영적문제이다. 그러므로 영적인 힘을 얻어야 한다. 스가랴 4:6절 말씀을 잘 안다. 이것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능으로도 안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했다. 이 말씀은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이야기이다.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아주 근본적인 일들이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단어로 바꾸면 예배와 기도이다. 이것이 너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영으로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언약으로 잡기 바란다.

1. 다른 불

오늘 본문은 아론의 아들 훌리와 비느하스, 제사장들이다. 이들이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거기서 나온 불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죽었다. 백성들이 아마 깜짝 놀랐을 것이다. 제사장이 분향을 하다가 그 불에 타죽었으니

까 이게 보통일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슨 불을 가지고 불여야 하는지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불을 가지고 온 것이다. 레위기 9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것을 그리고 있다. 그 제사를 드리고 있는 데 마지막절 9장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니까 온 백성이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고 하였다. 첫 번째 번제 제사를 드리는데 불이 여호와에게서 나왔다고 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불, 사람이 붙인 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불이 그 제단의 모든 제물을 살랐다고 하였다. 이 장면을 본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놀라서 전부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다고 하였다. 몇 명인가? 한 어떤 분은 250만, 어떤 분은 300만이라고 하였다. 그 사람들, 적어도 몇백만명 되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다. 놀라운 불이다. 이 불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불, 세상에서 가져온 불이 아니고, 그 말이다.

성소에는 불이 세군데 필요하다. 번제드릴 때 필요하다. 그리고 등잔에 불을 붙이는데 필요하다. 또한 오늘 향단, 향을 피울 때 불이 필요하다. 이 불을 그 불을 가지고 여기에 쓰게 되어 있는데 안 썼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예사로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이해를 못한 것이다. 이 불이 어떤 불인지, 그리스도의 불,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처음에 복음을 잘 못 깨달았을때에는 교회를 예사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나중에 깨닫고 난 뒤에 그 때부터 심각하고 진짜가 되는 것이다. 나답과 아비후가 이것을 모르고 예사로 생각한 것이다. 레위기 6장 12절에는 제단의 불은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하라고 했다. 절대 항상 피워서 꺼지게 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제사장은 아침마다 그 위에서 나무를 태우고 번제물, 화목제를 그 위에서 불사르라고 했고, 13절에는 그 불을 끊임없이 태워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였다. 처음 시작된 이 불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것이 BC1500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때부터 이 불이 꺼지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다. 이 불을 화로같은데 해서 보관하고 있었다. 절대 꺼지지 않게 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는 네가 제단위에 드릴 것은 매일 일년된 어린양 두 마리를 드리라고 했다. 39절에는 한 어린양은 아침에, 한 어린양은 저녁에 드리라고 하였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린양 한 마리씩 번제로 드리는 것이다. 제사장이 할 일이다. 그래서 42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희막 문에서 드릴 번제라고 하였다. 생각날 때마다 하는게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대를 이어서 해야 하는 것이다. 거기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말하겠다고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을 안하시면 하나님의 백성은 엉망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동안 끊어졌을 때 생긴게 바리새인들이다. 400년간 선지자가 한명도 없었다. 그래서 자기들 멋대로 성경 해석했더니 그 결과로 예수님을 죽인 것이다. 이것보다 더 큰 오해가 세상에 있을수가 있는가? 이것보다 더 미친짓이 없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 버렸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자기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그 성경대로 오신 그분을 모르고 죽여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여기에 이렇게 매일 드려야 하는 제사에 쓰는 불이 그 불이라는 것이다. 처음 제사를 드릴 그 때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전 백성이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던 그 불을 쓰라는 것이다. 레위기 16장을 보면 왜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는지 조금 더 이해할수 있다. 레위기 16장 12절에 보면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이라고 하였다. 그것을 거기에 채우고라고 하였다. 그 향로에 그 불을 채우고, 그리고 곱게 한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서 휘장 안에 들어가서라고 하였다. 13절에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증거케 앞 속죄소에 가리게 하라고 하였다. 그 앞에 향을 세워서 그것을 가리라고 하였다. 향으로.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였다. 향을 피우는 것은 좋은데, 불을 그 불을 쓰지 않아서 죽은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불이 이렇게도 중요한가? 이 번제단의 불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드릴 때 나온 불이다. 역사상 처음으로 한번 나오고 또 다시 나오지 않은 불이다. 레위기 8장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위임식이 나온다. 당신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앞에서의 제사장들이요라는 예식이었다. 9장에는 보면 제사장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 전에는 개인이 자기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렸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 때 그 불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왔는데, 그 광경이 너무나 두렵거나 대단해서 전 백성이 소리를 지르면서 엎드렸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누구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줬다. 이 불이다. 하나님이 주신 불이다. 그리고 언약의 불이고, 그리스도의 불이다. 이 불은 또 다시 나오는 법이 없다. 한번 주신 것으로 끝이고 절대 이 불이 꺼지면 안된다. 예수님도 다시 와서 십자가에 또 죽으시는 일 없다. 한번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이라는 메시지이다. 그런데 다른 불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능멸했으니 안 죽을수가 없다. 하나님은 앞으로 이 불, 그리스도의 이 불을 가지고 앞으로 얼마만큼 많은 생명을 구할지 모르는데 이것을 예사로 생각하면 그것을 그냥 돌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보면, 그리스도의 불을 거부하고 세상의 불을, 거룩한 성전에 가져왔으니까, 그것도 처음 시작인데.. 그 처음 시작 바로 그 다음에 그렇게 되어 버렸다. 오직 그리스도의 불 외에는 용납이 안된다는 메시지이다. 가인의 예를을 받지 않으신 이유와 동일하다. 약속을 가져와야 한다. 다른 것을 가져왔으니 받을수가 없다. 약속한 불, 하나님이 지명한 그 불을 가져와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것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이 지명하셨다. 그를 믿으면 구원하겠다. 오직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 바로 바른 복음이다. 이 외에 다른 복음은 다른 불처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바른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참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을 바로 알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다. 너무나 감사하다. 갈라디아서 1:8절에 사도바울이 한 이야기인데,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였다. 다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든지, 혹은 천사라 할지라도 지금말한 이 복음 외에 다른 소리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를 이 그리스도를 잘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정말로 감사한 일이다.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전에 얼마나 해매었는가? 잘 하는줄 알았는데 진짜를 알고 보니까 잘 한게 아니었다. 어쩔수 없는 것이었다.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른 불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영원히 꺼지지 않고 다시 주시는 법도 없다. 그 불이다. 다시 한번 언약 되기 바란다. 그리스도. 새출발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잡고 기도하기 바란다.

2. 사명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했다.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고 하였다. 슬픈 일이 있을 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라고 하였다. 이 말은 너희 형제가 죽었다고 슬퍼하면 너희가 죽을 거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적으로 슬퍼할 일이 아니라 엄중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의 진노가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는 것이다. 너희가 제사장이니까 너희가 개인적인 것 때문에 슬퍼하면 그 진노가 백성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막으라는 것

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족속은 오히려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하라고 했다. 온 이스라엘은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로 인해 심판 당했음을 슬퍼하라는 것이다. 왜 다른 불을 가져왔는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흠니와 비느하스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너 자신의 죽음도 막고 백성에게 임하는 진노도 막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너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게 제사장의 사명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다. 백성을 위해 먼저 헌신해야 할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도 제사장이라고 하였다. 세상이 죽어가는 것을 막아야 하는 제사장이라는 것이다.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 형제가 죽어도 머리를 풀거나 슬퍼하지 말라 하였다. 이 들처럼 우리도 세상에 대해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사명을 받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다. 그리스도를 알고 바로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근본적으로 첫째 중요하다. 그 다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사명을 받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모세는 어릴 때부터 창세기를 다 외울정도로 어머니로부터 복음 받았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창세기를 썼다고 신학자들이 해석을 한다. 창세기 3장 15절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가인과 아벨 이야기 전부 싹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모세에게 사명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삶에 큰 변화가 없었다. 미디안 광야에서 떨어져 살고 있을 때 오히려 질문이 더 많았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만나서 가나안이라는 사명을 받는데, 그 때부터 사람이 180도 달라졌다. 사도바울의 경우에는 더 심하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가두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날 주님을 만나 복음을 깨닫고, 그분이 그리스도였다는 말이나 하고 완전히 뒤집어 졌다. 우리가 복음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복음을 개인적으로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결국 가야할 곳이 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여기에 헌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100년의 응답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 하고 있다. 복음을 누리고 사명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100년의 응답을 받는 다는 것이 성경의 응답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방향과 목표가 너무나 선명하다.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할수 있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다 알고 있다. 이 일을 목회자 뿐 아니라 평신도들이 더 확실하게 했다. 성경에 확실한 증거가 있다. 평신도 제자들이 시대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성경많은 곳에 기록하고 있다. 히브리서 11장의 허다한 증인들, 대부분이 평신도 제자들이었다. 평신도들이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을 살리고 제자를 삼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팀으로 복음 현장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 중의 뜻이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들, 목회자보다 더 복음적이고 복음의 사람이었다. 진짜 현장의 사람들이고 아주 복음 운동가들이었다. 아주 대단한 역할들을 했다. 일반 성도들 중에서는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이런 많은 평신도들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그것을 목표로 올해는 지교회 중직자 렘넌트 이런 단어를 받았다. 이것이나의 24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 24 되어야 한다. 현장에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 현장 24이다. 우리 11차 캠프를 통해서 많은 중요한 문을 열기를 바란다.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은 자의 예배는 시공간을 초월한다고 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공간을 뛰어 넘는 힘이 있다는 말이다. 우리 모두 다른 불이 아니고 바로 그 불을 가지고 그리스도 언약 잡고 예배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였다. 평생을 두고 그리스도를 잡고 찾는 것이다. 24시간 찾는 것을 보고 24기도라고 한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이 주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란다.